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38호

발행인 : 김정태

발행일 : 2017년 1월 9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새로운 해가 시작됐습니다.

‘다사다난’ 이라고 표현하기도 어려울만큼 정말 많은 일들이 역동적으로 벌어졌던 2016년이 저물고,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부는 1월 3일 열사 묘역에서 시무식으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2016년 투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고 새롭게 또 투쟁을 시작합니다.

한광호 열사를 고이 보내드리는 2017년을 만듭시다.

현대차와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범죄로 고통받다 먼저 세상을 떠난 한광호 열사가 아직도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열사가 돌아가신지 300일입니다. 열사는 돌아가신 뒤에도 300일을 냉동고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열사를 고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유성기업의 노조파괴를 끝장내야 합니다.

지금도 유성지회 동지들은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 열사의 한을 풀고자 노숙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겨울 찬바람이 뺏속까지 파고들지만 열사 투쟁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천막 하나 칠 수 없는 거대 재벌의 앞마당에서 비닐 한 장에 의존해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따뜻한 연대만이 한겨울 강추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더 많은 연대로 열사 투쟁을 승리로 만듭시다.

낡은 박근혜 체제 끝장내고 새로운 사회를 만듭시다.

1,000만명의 촛불시민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국정을 농단하며 재벌천국-노동지옥을 만들었던 박근혜 정권에 강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박근혜를 탄핵하긴 했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입니다. 대통령 한명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바뀐다고 당장 노조파괴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이 훌쩍 오르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촛불집회에 나온 시민들은 박근혜 퇴진과 함께 ‘재벌도 공범’이라고 외쳤습니다. 삼성, 현대를 비롯한 재벌들이 정권에 뒷돈을 쥐가며 어떻게 자신들의 배를 불러왔는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를 비롯한 권력자들 뿐만 아니라 재벌 총수들도 구속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낡은 박근혜 체제를 끝장내는 것이고, 그래야 진짜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딱 한 걸음 더 나감시다!

2016년 한 해 동안 지부는 수많은 투쟁을 통해 지부 전체의 조직력을 올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열사투쟁, 임단투, 박근혜 퇴진 투쟁을 함께 하며 지부 전체의 공동투쟁으로 함께 승리하는 모습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지부 총과업 성사, 박근혜 탄핵을 통해 작지만 소중한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이제 2017년에는 그보다 한 걸음 더 나가려고 합니다. 조합원 동지들과 조금 더 소통하고 함께 투쟁하는 지부를 만들겠습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장 김정태